

지 상 법 석

“바로 지금 이자리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61·끝)

戒互用之罪 (계호용지죄) ③

甚竊常主 以爲己有 爲如何哉
삼질상주 이위기유 위어하재
彼明眼人 被互用罪
죄명안인 피호용죄

상주들을 도둑질하여 제 소유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 눈밝은 이(수용을 가리킴) 일지라도 어긋 나쁜 죄를 입어

尙受善報
승수고보
況具種人 取三寶物 私用之罪 豈可逃乎
황구반인 취삼보물 사유지죄 기가도호

오허려 지옥과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서간번뇌에 얽혀 사는 이가 삼보공양물을 제것으로 삼으면 사사로운 쓴 죄를 어찌 도피할 수 있단 말인가

又東山 彌公 行業高潔
우동산연공 행업고결
自東山 遷至五峰
자동산 천지오봉
見火筋 與東山 方丈所用
견화근 與東山 方丈所用
견화근 여동산방장소용

그 권속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동산 방장의 물건이 아니더냐 하니 권속이 그렇습니다. 피차 상주들이지라

“삼보공양물 제것삼아 사사로이 쓰면 지옥과보 면하기 어려우니 삼가해야”

無利應故 將至矣
무리혜고 장지의
師 曰汝輩 無識
사 알어배 무식

이해상관을 따질게 없는고로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선사가 가로되 너희들은 무식하구나

安知因果 有互用罪 急令送還
안지인과 유호용죄 급령송환

어찌 인과에 어긋나뉘는 죄가 있을을 알리오 하시고는 급히 돌려보내라 하였다.

稽古 得隨得皮 (계고득수득피)

達磨 住小林 經九年 欲返天竺
달마 주소림 경구년 욕반천축
乃謂門人 曰時將至矣
내위문인왈시장지의

달마조사가 소림사에 머물기를 9년동안

안 하시고 천축국(인도)으로 돌아가시고자
이에 문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때가 되었으니

蓋各言所得故
개각인소득고
道謂 曰不執文字 不離文字 以爲道用
도부 알부집문자 불리문자 이위도용

다들 각자 얻은 바를 말하라” 하였다. 도부가 이르되,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으면서 이로써 도를 쓰고 있습니다.(생활가운데 도가 있습니다)” 하였다.

曰汝得吾皮
알어득오피
總持 曰我今所解 如摩竭 見阿濕波國
총지 알아금소해 여경희 견아습불국

달마조사 가로되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노라’ 하였다. 총지가 이르되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경희(아습불의 나라)가 아습불의 나라를 보는 것과 같이

一見 不在 曰汝得吾肉
일견 부재견 알아득오육
道言 曰以我現處 無一法可得
도육 알아이현처 무일법가득

한번보니 다시 보지 않나이다(제가 자를 보니 다시 본다 할 것이 없나이다) 하니 조사가 가로되 ‘너는 나의 살을

얻었노라’ 하였다. 도육이 이르되 “제가 본 곳으로써 이를 진대 한 번도 가히 얻을게 없나이다” 하니

曰汝得吾骨
알어득오골
最後 慧可 出禮三拜 依位而立
최후 혜가 출예삼배 의위이립
최후 혜가 출예삼배 의위이립

조사가 가로되 너는 나의 뼈를 얻었노라 하였다.

최후에 혜가는 조사앞에 나와 삼배를 올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서있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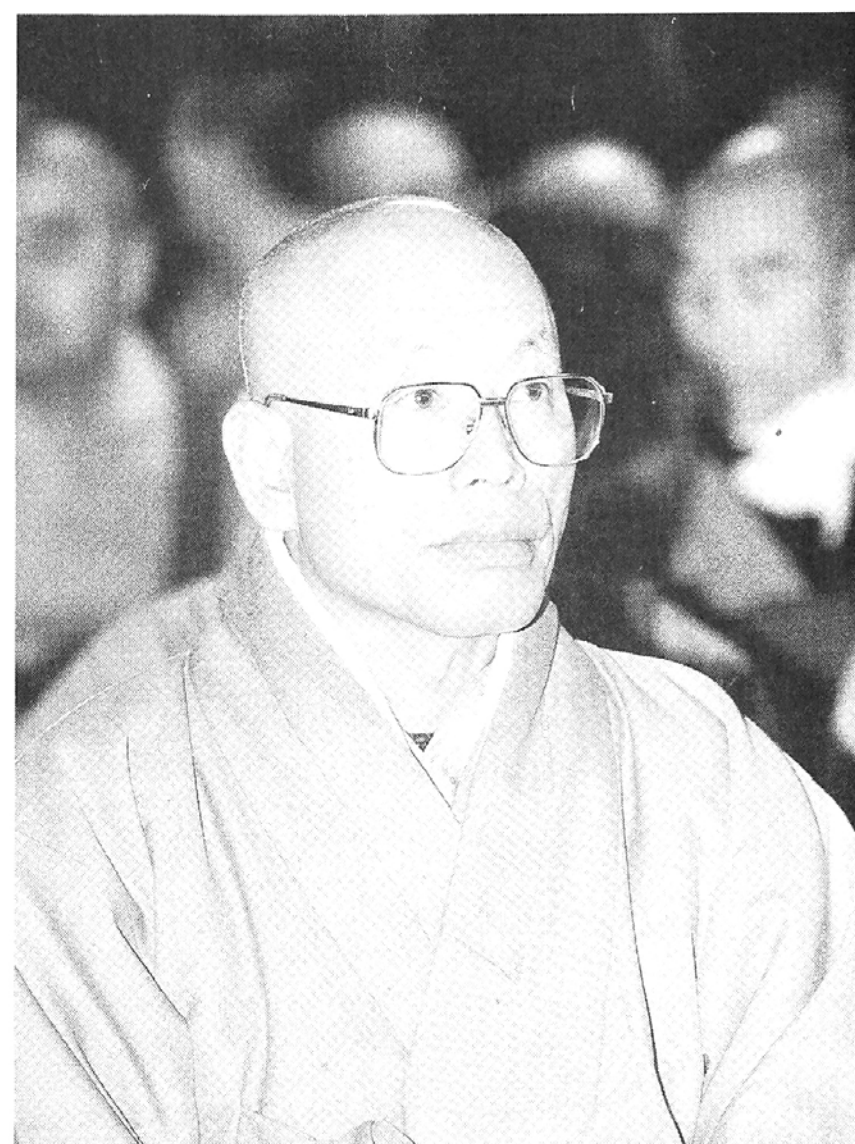
曰汝得吾髓
알어득오수

조사가 가로되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노라’ 하였다. 龍眼

인기연재를 ‘치문경훈’은 본회로 끝내고 다음호부터는 중국 운문산 허운(虛雲) 노화상이 지은 ‘참선요지’를 연재합니다. 독자 제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어느새 더위가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나 이 여름이 아무리 더울지라도 가을은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요. 계절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계절을 좇아 허덕이며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달이고 추우면 추워서 탈입니다. 계절을 뒤쫓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도 언제나 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비가 되어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은 변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제대로 응시하며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죽어 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 성품, 즉 불성(佛性)이라고 합니다. 본성(本性)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성품을 찾는 일은 물질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인 불변의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내가 부처구나’ 하고 확실한 모습을 찾는 것을 수행이라 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쉬

현해스님 월정사 주지



약 력
· 35년 울산 생
· 58년 월정사에서 민화스님을 은사로 득도
· 62년 월정사 강원 출
· 동국대 불교학과 및 대학원 졸업
· 일본 고마자와 대학사과정 수료
· 일본 와세다대에서 동양철학 전대학 연구
· 조계종 제3·7·10대 총회의원 역임

내가 누구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골뎠히 생각하며
가지런한 몸가짐이
수행의 첫걸음

운 일이 아닙니다.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나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유경)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 봅시다. 옛날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욕심이 많고 머리가 조금 나빴습니다. 어느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근사한 3층 누각을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자기도 3층누각을 짓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일 잘하는 목수를 불러 3층 누각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목수가 일을 하는데 땅을 자주 파니까 그 부자가 목수를 보고는 “나는 3층 누각이 필요한데 왜 자꾸 땅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수는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1층과 2층을 짓고 3층을 짓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라고 대답 했겠지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부자는 “땅 파는 것도 필요 없고 1층, 2층도 필요없고 다만 나는 3층 누각만 필요하다고 우겨대는 것이었습니다. 목수는 이 어리석은 주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 집을 떠나 버렸습니다. 수행을 하여 부처를 이루는 일은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같이 어리석

은 사람은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불법에 귀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혼자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사람이 함께 정진하는 곳을 찾아 거처를 조금씩 수행력, 즉 근기를 키워야 합니다. 아니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스승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백유경)의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기초를 다지고 아랫층부터 차근차근 지어올라가지 않으면 바른 집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요즘은 소위 ‘스피드 시대’가 되어서 그

런지 뭐든지 빨리빨리 해버려라 합니다. 남보다 빨리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시대가 그런 패속을 요구하는데 느릿느릿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빨리 할 것과 차근차근 할 것을 잘 가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얼른 해서 마치고 보자는 생각이 뒤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오는지 최근 몇년 사이의 대형사고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수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서둘러서도 안되고 제 멋대로 해서도 안됩니다. 가서 이를 곳이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기나긴 여정이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어려운 것이라

는데 집착을 하면 더 큰 무명을 낳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본래 내 마음 자리는 어느 곳인가를 골뎠히 생각하며 몸을 가지런히 하는 것부터 수행은 시작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삶이 그 수행의 기본을 안에서 영위되어야 합니다. 생활불교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이라는 현실적 욕구와 수행이라는 지극히 초월적인 행위의 결합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 두가지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는 한은 영원히 이뤄낼 수 없을 겁니다. 생활속의 수행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활과 수행을 따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여러번 수행은 어려운 것이라고 할 했지만 그것도 합칩니다. 생활이

녹수청산으로 오십시오.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따릅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분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단체예약 모임은 저녁 10:30 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서비스 혜택이 있습니다)